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동옥¹, 변성원², 이해진^{1*}

¹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부, ²안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Factors Influence of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ong-Ok Kim¹, Soung-Won Byun², Haejin Lee^{1*}

¹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²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 190명으로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와 수행자신감을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51.1%였으며,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11개 이상 78.4%였다.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남자, 연령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졌으며, 특히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다($p < 0.001$). 하지만 수행자신감은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 = 0.463$).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다양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안책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CBN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3rd and 4th grade 190 nursing students in G cit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3.0 program.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experience CBNS below 5 was 51.1%,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CBNS over 11 was 78.4%.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CBNS experience increased with male, increase age and grade, and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specially, as the number of experience CBNS increased, clinical competency increased($p < 0.001$). But clinical competency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observation CBNS($p = 0.463$). The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ere age, grad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number of experience CB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pportunity to directly experience the various CBN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an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se simulation education.

Keywords : Clinical Competency, Core Basic Nursing Skill,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aejin Lee(Gyeongbuk College of Health)

email: nemesis1265@gmail.com

Received April 9, 2019

Accepted July 5, 2019

Revised May 16,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으로 일정한 교육과정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 취득 후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 배출을 목표로 한다[1]. 이러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함양을 위해 간호학에서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2,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은 간호사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또한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개념을 실제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3,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된다[3].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 업무수행에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간호술로 간호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졸업학년까지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간호술 20항목을 도출하여 공적인 합의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5]. 이렇듯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 판단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6,7].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이 강조되면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술기를 경험하기 어려워졌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 저하를 가져왔다[9].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행 자신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10]에서 보듯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은 임상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11,12].

수행자신감은 어떠한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13],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동기부여 또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요소가 된다[14]. 아울러 간호사로서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며, 환자에게 수준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14],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함께 요구되는 간호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질적인 실습경험 또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의 동기가 되므로 학생 스스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학습과 탐구방법을 배우고 간호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실무수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과정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간호업무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12].

그러나 현재의 임상실습 교육은 긴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임상환경과 대상자의 질 높은 간호요구의 증가, 의료사고의 위험성 및 임상실습현장에서의 교육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인 간호수행보다는 관찰 위주로 실습이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적합한 임상실습기관의 부족과 대학실습교육 여건 미흡으로 임상실습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15-17]. 이와 같은 임상실습교육의 문제는 간호대학생이 미래에 신규간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호행위를 경험하지 못하여 지식의 활용 및 환자간호에 대해 많은 제한을 느끼게 할 수 있다[18].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은 실무현장에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복잡해져가는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함양해야 하므로 임상 현장에서 간호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19] 실습교육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6]. 또한 졸업 후 바로 임상실무에 투입되지 못하여 재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20],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은 실제적인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많은 대학에서 임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과 교내 실습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교과별 편성과 자율실습이 포함된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간호대학생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이를 통해 추후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과정개발의 토대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을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 중 임상실습을 최소 1개 학기 이상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7개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 수는 151명이었으며, 탈락율 25%를 고려하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190명이었다.

2.3 연구 변수 및 도구

2.3.1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특성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다경험 부서,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를 포함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하였다.

2.3.2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Oh[5]가 제시한 평가 도구에 따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을 연구자들이 22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수액주입, 수혈요법, 간헐적 위관영양, 도뇨간호, 배출관장, 수술 전 간호-심호흡 교육, 수술 전 간호-피부 준비, 수술 후 간호-배액관 관리, 수술 후 간호-PCA 관리, 수술 후 간호-체위 관리, 입원관리, 보호장구 착용, 산소포화도 측정, 산소요법,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심폐소생술). 그리고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은 학생이 임상실습 전 과정을 통해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경험', 단순히 눈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는 '관찰경험', 그리고 수행경험이나 관찰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미경험'으로 분류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Oh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으며[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였다.

2.3.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22개 항목의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감의 주관적 점수로,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점, '잘 할 수 있다' 4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3점,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 2점, '전혀 못하겠다' 1점으로 자가 평가한 점수이다. 즉,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으며[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23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중 임상실습을 최소 1개 학기 이상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참여 공고를 하고 설문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 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는 자유의사이며,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 및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설문지에 기입된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의 작성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4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가운데 미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이 어려운 4부를 제외하고 총 1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160명(84.2%), 남자 30명(15.8%)이었다. 연령은 만 21세 미만 87명(45.8%), 만 22세 51명(26.8%), 만 23세 16명(8.4%), 만 24세 이상이 36명(18.9%)이었다. 학년은 3학년 85명(44.7%), 4학년 105명(55.3%)이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 83명(43.7%), '보통' 60명(31.6%), '매우 만족' 29명(15.5%) 순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84명(44.2%), '만족' 77명(40.5%), '불만족' 19명(10.0%) 순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다경험 부서로는 내과(42.6%), 외과(26.3%), 중환자실(9.5%), 응급실(8.4%) 순이었다. 그리고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97명(51.1%), '6~10개'가 69명(36.3%), '11개 이상'이 24명(12.6%)이었다.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11명(5.8%), '6~10개'가 30명(15.8%), '11개 이상'이 149명(78.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0 (84.2)
	Male	30 (15.8)
Age(yr)	≤21	87 (45.9)
	22	51 (26.8)
	23	16 (8.4)
	≥24	36 (18.9)
Grade	3rd Grade	85 (44.7)
	4th Grade	105 (55.3)
Major subjec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9 (15.3)
	Satisfaction	83 (43.7)
	Average	60 (31.6)
	non Satisfaction	16 (8.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non Satisfaction	2 (1.1)
	Very Satisfaction	10 (5.3)
	Satisfaction	77 (40.5)
	Average	84 (44.2)
Most experience department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CBNS)	non Satisfaction	19 (10.0)
	very non Satisfaction	0 (0.0)
	Medicine	81 (42.6)
	Surgical	50 (26.3)
No. of CBNS - Experience	Obstetrics & Gynecology	6 (3.2)
	Pediatric	1 (0.5)
	Intensive care unit	18 (9.5)
	Emergency room	16 (8.4)
	Delivery room	4 (2.1)
	Newborn unit	8 (4.2)
	Out patient unit	3 (1.6)
	Etc.	3 (1.6)
No. of CBNS - Observation	≤5	97 (51.1)
	6~10	69 (36.3)
	≥11	24 (12.6)
No. of CBNS - Observation	≤5	11 (5.8)
	6~10	30 (15.8)
	≥11	149 (78.4)

CBNS=core basic nursing skill

3.2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서 수행자신감은 남자가 74.53점으로 여자의 67.9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서 수행자신감은 만 23세에서 79.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 24세 이상이 75.92점, 만 22세가 72.71점 순으로 높았다. 학년에서는 4학년이 73.84점으로 3학년의 62.98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매우 만족'의 경우 8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이 68.80점, '불만족'이 67.8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매우 만족'이 86.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 71.62점, '보

통' 65.86점, '불만족' 6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5개 이하' 64.09점, '6~10개' 72.62점, '11개 이상'이 78.2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5개 이하' 68.18점, '6~10개' 72.43 점, '11개 이상'이 68.34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degree of experi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Competenc	t or F (<i>p</i>)
		Mean±SD	
Gender	Female	67.94±16.56	2.017 (.045)
	Male	74.53±15.73	
Age(yr)	≤21	62.01±14.30	11.971 (<.001)
	22	72.71±15.71	
	23	79.38±15.44	
	≥24	75.92±16.89	
Grade	3rd Grade	62.98±15.47	-4.742 (<.001)
	4th Grade	73.84±15.88	
Major subjec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80.52±18.60	5.362 (<.001)
	Satisfaction	68.80±15.03	
	Average	64.28±14.93	
	non Satisfaction	67.81±17.60	
	very non Satisfaction	59.50±21.9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86.70±15.80	6.964 (<.001)
	Satisfaction	71.62±16.26	
	Average	65.86±15.77	
	non Satisfaction	62.74±14.26	
No. of CBNS - Experience	≤5	64.09±17.15	10.631 (<.001)
	6~10	72.62±13.01	
	≥11	78.25±17.25	
No. of CBNS - Observation	≤5	68.18±18.84	0.773 (.463)
	6~10	72.43±16.77	
	≥11	68.34±16.39	

CBNS=core basic nursing skill

3.3 대상자의 수행자신감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를 변수로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89,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29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29.0%였다.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beta=.2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연령과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 임상실습 만족도 순이었다(Table 3).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계값과 VIF값 및 Durbin-Watson 값을 산출하였다. Durbin-Watson 값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2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값은 0.70~0.89로 0.1보다 크고, VIF값은 1.13~1.43으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Table 3. Factors Influence of Practice Confidence (N=190)

Variable	β	t	<i>p</i>
(Constant)		2.85	.005
Gender	-.04	-0.53	.599
Age(yr)	.25	3.49	.001
Grade	.26	3.98	<.001
Major subject satisfaction	.14	1.93	.05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5	2.06	.040
No. of CBNS - Experience	.18	2.75	.007
Adjusted $R^2=.29$, $F=13.89$, $p<.001$			

CBNS=core basic nursing skill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중 학생들이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51.1%, 6~10개 사이가 36.3%로 전체 학생의 87.4%가 임상실습 중 10개미만의 핵심간호술 수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증가로 간호사들이 고위

힘도 간호활동의 경우엔 학생들에게 수행해 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간호인력의 부족과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실습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23]. 또한 임상실무에서 흔히 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이 침습적이고 위험도가 높아 관찰기회는 있으나 수행기회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16].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다경험 부서로는 내과(42.6%), 외과(26.3%), 중환자실(9.5%), 응급실(8.4%) 순이었으며, 70% 이상의 학생들이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은 활력징후 측정이며 수행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10]. 이것은 학생들의 실습경험이 안전하지만 단순한 간호활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11], 임상현장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간호활동에서 미경험률이 높다고 보고한 최동원(2014)[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아울러 본 조사가 지역적으로 한정된 임상실습지를 가진 대학에서 이루어져 간호대학생 수에 비해 임상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간호수행을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간호대학생들은 수도권의 간호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으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 난이도가 높은 핵심간호술기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의 실습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여자(67.9점)보다 남자(74.5점)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은 4학년이 73.8점으로 3학년의 62.9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김순옥과 강복희(2016)[12]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은 높아졌다. 또한,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증가할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지지만, 관찰경험이 많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은 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다른 항목이나 교과목에 비해 반복학습을 통한 습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22], 간호대학생은 많은 관찰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수행경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beta = .2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연령과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 임상실습 만족도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 중 수행경험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가 수행자신감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2,23]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5,1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다양한 핵심기본간호술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임상실습 현장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령과 학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연령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 경험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임상실습 기간이 증가하여도 반드시 수행경험하거나 관찰경험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업무 중 빈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간호술로 간호대학생의 교육요구도가 높고[24], 간호교육과정 중 필수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역량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25].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기간 중 직접 수행경험의 기회를 증가시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과도한 간호대학의 증설과 관찰중심의 실습교육으로 인해 임상에서의 직접수행기회가 적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26]. 시뮬레이션교육은 실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피드백의 즉시 제공, 반복적인 실전교육, 교과과정의 신속한 흡수, 난이도 조정, 개별학습의 기회 제공 및 다양한 학습전략 노출에 대한 적응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인 수행경험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2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지역대학으로 다양한 수행경험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간호교육과정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임상실습 중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은 직접 수행보다는 관찰 경험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은 높아졌으며,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와 관찰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과정 중 수행경험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극적인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경험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J. H. Yoo, H. S. Cho, S. H. Lee, "Effects of Clinical Basic Nursing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8, No.1, pp.45-53, 2002
from: <http://www.riss.kr/link?id=A102915075>
- [2]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 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53-61, 2012.
from: <http://www.riss.kr/link?id=A100292447>
- [3]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1, pp.46-56, 2012.
from: <http://www.riss.kr/link?id=A60058553>
- [4] L. Croxon, C. Maginnis, "Evaluation of clinical teaching models for nursing practi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9, pp.236-243, 2009.
DOI: <http://dx.doi.org/10.1016/j.nepr.2008.06.004>
- [5] M. Y. Oh, *A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 Master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2017.
from: <http://www.riss.kr/link?id=T14388501>
- [6] S. N. Park, S. K. Lee,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Nursing*, Vol.15, No.1, pp.6-13, 2008.
from: <http://www.riss.kr/link?id=A82383622>
- [7]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o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2, pp.364-371, 1998.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8] K. C. Lim, "Planning and Applying Simulation - based Practice for the Achievement of Program Outcom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3, pp.393-405, 2015.
from: <http://www.riss.kr/link?id=A100708426>
- [9] I. S. Seo, S. M. Oh, D. W. Choi, H. O. Park, R. W. Ma,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4, pp.2276-2284, 2014.
from: <http://www.riss.kr/link?id=A103307698>
- [10] A. K. Han, D. S. Cho, J. S.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1, No.2, pp.162-173, 2014.
DOI: <http://www.riss.kr/link?id=A100026794>
- [11] D. W. Choi,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184-191, 2014.
from: <http://www.riss.kr/link?id=A100028241>
- [12] S. O. Kim, B. H. Kang,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172-18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172>
- [13] J. Y. 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5, pp.2595-2607, 2010.
from: <http://www.riss.kr/link?id=A101601070>
- [14] S. J. Lee, Y. M. Park, S. M. Noh,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with Hybrid Model for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elf Confidenc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5, No.2, pp.170-182, 2013.
from: <http://www.riss.kr/link?id=A99638345>
- [15] M. W. Kim,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Doctori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3.
from: <http://www.riss.kr/link?id=T9256356>
- [16]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 No.2, pp.143-154, 2007.

from: <http://www.riss.kr/link?id=A100292280>

- [17] K. Midgley,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26, No.4, pp.338-345, 2006.
from: <http://www.riss.kr/link?id=O44543709>
- [18] C. H. Lee, Y. H. Sung, Y. Y. Jung, J. S. Kim, "Analysis of Nursing Care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4, No.2, pp.249-263, 1998.
from: <http://www.riss.kr/link?id=A100292034>
- [19] M. Oermann, "Reforming nursing education for future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 No.5, pp.217, 1994.
from: <https://www.ncbi.nlm.nih.gov/pubmed/8051572>
- [20] M. S. Yoo, I. Y. Yoo, Y. O. Park, Y. J. Son, "Comparison of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in Different Instructional Methods for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No.3, pp.327-335, 2002.
from: <http://www.riss.kr/link?id=A100115100>
- [21] S. S. Bang,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 Master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Seoul, 2014.
from: <http://www.riss.kr/link?id=T13560115>
- [22] M. S. Choi, H. J. Dong, "A Study on Chang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329-338,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329>
- [23] J. H. Yang, K. Y. Park, M. J. Kim, Y. Y. Yang,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n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2611-2622, 2012.
- [24] J. H. Yang,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Vol.3, No.3, pp.128-138, 2012. DOI: <https://doi.org/10.5430/inep.v3n3p128>
- [2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first hal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college manual, Seoul, 2017.
from: <http://www.kabone.or.kr/index.php>
- [26] K. C. Lim., "Simulation-based Clinical Judgment and Performance Ability for Tracheal Su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3, pp.330-340, 2017.
from: <http://www.riss.kr/link?id=A103379563>
- [27] S. B. Issenberg, W. C. McGaghie, E. R. Petrusa, D. L. Gordon, R. J. Scalse, "Features and uses of high-fidelity medical simulations that lead to effective learning: a BEME systematic review", *Medical Teacher*, Vol.27, No.1, pp.10-28, 2005.
from: <http://www.riss.kr/link?id=O42346565>

김 동 옥(Dong-Ok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건강증진,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변 성 원(Soung-Won Byun)

[정회원]



- 2002년 2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다문화간호, 상담, 자연치유, 간호교육

이 혜 진(Haejin Lee)

[정회원]



- 2011년 7월 : Middlesex University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8년 2월 : 아주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노화불안, 간호교육